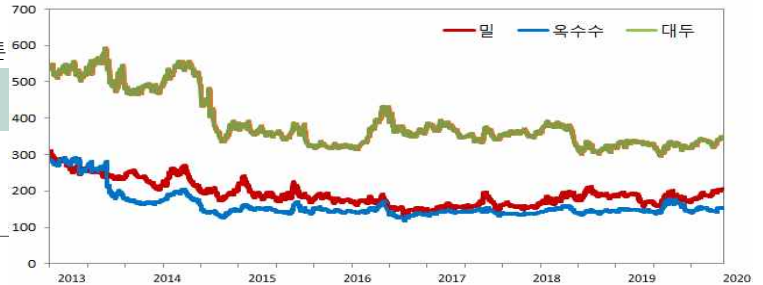


## 옥수수 선물가격, 기술매수 및 환매수로 인해 상승

###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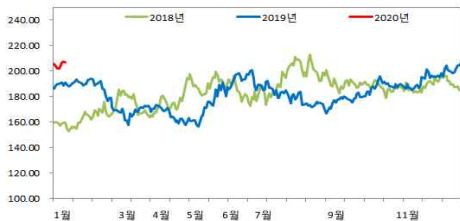
구분	기준일 ('20.01.13)	전일대비	전월평균 ('19.12)	2018 평균
밀	206.59	▼0.4%	199	183
옥수수	153.34	▲1.0%	149	146
대두	346.21	▼0.4%	335	344

단위 : US\$/톤



주1.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(적색연질밀; SRW), 옥수수, 대두의 근월물 (밀 : 3월, 옥수수 : 3월, 대두 : 3월물) 정산가격임.

### 밀 선물시장 상황
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.4% 하락했다. 밀 선물가격은 금요일 3월 기준거래가격 WH0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기술매도와 시세차익거래로 인해 하락했다. 미 농무부는 최근 주간 밀 수출 검사를 47만 3,960만 톤으로 보고했는데 이는 30만~50만 톤에 대한 무역 기대치와 일치했다. 시장은 여전히 2020년에 수확될 미국 겨울 밀 파종에 대한 미 농무부의 추정치를 3,080만 4천에 이커로 보고 있는데, 이는 무역 예상치와 거의 일치하지만 1909년 이후로는 여전히 가장 적다.

###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
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.0% 상승했다. 옥수수 선물가격은 이번 주 체결될 미-중 무역협정에 앞서 기술매수와 환매수로 상승세를 보였다. 중국의 Liu He 부총리는 수요일에 미국과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. 미국 재무장관 Steven Mnuchin은 일요일 중국이 미국 농산물의 구매를 연간 400억~500억 달러로 늘리기로 약속했다는 미국의 입장을 되풀이했다. 그러나 이 협정에 대한 세부사항이 부족하여 일부 무역업자들을 신중하게 만들었다. 미 농무부는 최근 일주일간 미국산 옥수수 수출 검사를 46만 307 톤으로 보고했는데 이는 45만~65만 톤에 대한 무역 예상범위의 최저 수준이다.

### 대두 선물시장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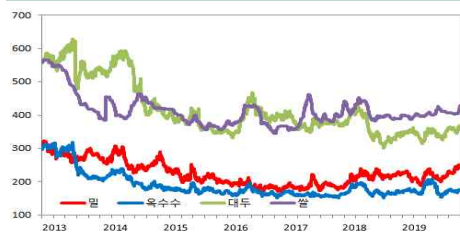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.4% 하락했다. 대두 선물가격은 이번 주에 체결될 미-중 무역협정이 미국 농작물 수요의 급격한 증가 예상과 남아메리카의 좋은 농작물 날씨로 인해 하락세를 보였다. 중국의 Liu He 부총리는 수요일에 미국과 1단계 무역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. 한 달 전에 처음 발표된 이 협정은 1월 초 시카고 거래소 대두가 201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. 농무부는 금요일 미국의 2019년 옥수수와 대두 수확량 추정치를 상향조정했는데, 이는 지난해의 악천후와 힘든 수확으로 인해 일부 상인들을 놀라게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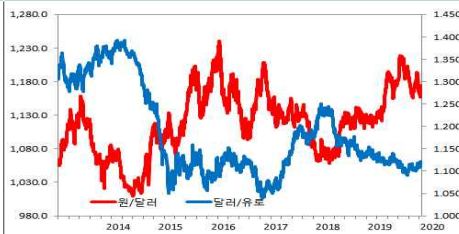
### 관련동향

- 오하이오 강과 일리노이 강의 높은 수위로 인한 바지선 운송비 상승은 걸프 만에서의 옥수수 베이스스를 약간 상승시켰고, HRW(Gulf)와 DNS(PNW) 밀 프리미엄은 농민 판매 호조, 내륙화물 가치 하락 및 해외수요 둔화로 완화되었음. 대두 및 SRW 밀 입찰은 대부분 안정적이었음.
- 13일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 완화, 미 정제 마진 부진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였고, 이번 주 미-중 1단계 무역협정의 서명 등은 유가 하락폭을 제한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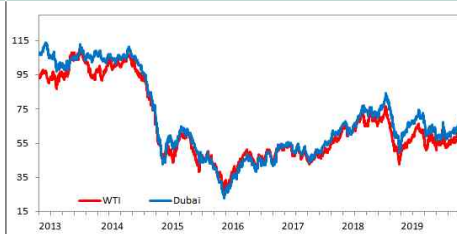
### 곡물 수출가격 (FOB)



### 환율



### 국제유가



곡물수출가격 (FOB)	구분	기준일	전일대비	구분	기준일	전일대비			
		밀	255		▲0.4%	환율	원/달러	1,161.1	▲0.1%
		옥수수	177		▲0.6%		달러/유로	1.1117	▲0.1%
		대두	368		-	국제유가	WTI	58.08	▼1.6%
	쌀	427	-	Dubai	65.68		▼0.3%		

1) 밀(US SRW Gulf), 옥수수(US 3YC Gulf), 대두(US Gulf), 쌀(Thailand 100% Grande B), WTI(근월물), Dubai(현물)

2) 기준일은 '20.01.10(수출가격), '20.01.13(환율), '20.01.13(국제유가)이며 자료출처(국제곡물이사회, 한국은행, 한국석유공사)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